

초등학교 음악과교사용지도서의 국악내용에 대한 고찰

- 5, 6학년을 중심으로 -

이 인 수*

차 례

- I. 들어가는 글
- II. 5학년 국악단원 분석
 - 1. 고사리 꺾자
 - 2. 떡노래
 - 3. 봄이 가고 여름 오면
 - 4. 아침해
 - 5. 맑은 물 흘러가니
 - 6. 날리리야
 - 7. 멸치잡는 노래
 - 8. 방패연
- III. 6학년 국악단원 분석
 - 1. 등당기 타령
 - 2. 개구리 소리
 - 3. 끼리끼리
 - 4. 싸름
 - 5. 거문도 뱃노래
 - 6. 풍년가
 - 7. 꿩지나 칭칭 나네
- IV. 끝맺는 글
 - 1. 결론
 - 2. 제언

*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글

교사용 지도서는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안내하고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필된 지침서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중등학교 교사와는 달리 한 과목만을 전공하여 전문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용 지도서에 대한 의존도가 중등학교보다 막중하고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서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당교과의 연수자료로서 실제적이고 유용하게 집필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음악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초등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교육대학 재학시 서양음악에 편중된 음악과 교육과정 안에서 국악을 배울 기회가 적었다. 때문에 국악의 이론이나 실기를 거의 모르고 있거나 잘 하지 못하고 있다.

국악 교육이 한층 더 강조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국악의 맛을 알고 느끼게 하는 국악교수, 학습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 가운데 국악부분을 살펴보면, 뚜렷한 집필지침이 결여된 상태에서 기술되어져 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반드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부분을 빠뜨린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도서에 제시된 지도서 편찬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요인들로 인하여 교사들은 오히려 교재연구나 수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혼란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는 교사용 지도서의 편찬방향에서는, ①“풍부한 교수·학습자료와 미적 경험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활용하기 좋은 지도서가 되도록 하였다” ②“음악적 능력이 실질적으로 신장되는 방법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실천적인 음악과 교수·학습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교사의 교재 연구와 수업 방법 개선에 도움이 되고 활용하기 용이하게 구성하였다”라고 언급하여 교사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교사들이 활용하기 좋은 지도서가 되도록 편찬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국악내용에 한해서만은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제7차 초등학교 음악과 교사용 지도서의 5, 6학년 국악부분을 분석함으로써 내용상의 제문제들을 규명하고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차후에 집필될 지도서는 보다 정확하고 교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5학년 국악 단원 분석

1. 고사리 꺾자

1) 55쪽

- (1) 제재 목표에서 '놀이를 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 고 하였는데 단위 시간에 놀이를 하며 노래를 부르기는 시간이 부족하다. 강당이나 운동장으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 (2)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 가. 시김새는 무리하게 소리 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부르는 연습을 하도록 지도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고 소리 내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2) 56쪽

- (1) 수업목표에서 '놀이를 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수업목표가 너무 많다. 2차시로 나누어 수업하는 것이 적당하다. 1차시에서는 노래 위주로 수업하고 놀이에 대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2차시에 장소를 이동하여 놀이 위주로 수업을 해야 무리가 없다.

3) 57쪽

- (1) 정리부분 나. 놀이하며 노래 부르기에서 '원으로 둘러앉아 노래 부른다.'고 하였는데 단위 시간의 학습량이 너무 많고 공간 확보 및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
- (2) 정간보를 보면 쉼표가 정간보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음악의 올바른 표기법이 아니다. 우리 음악의 체계를 너무 서양식으로 표현하였다. 적어도 우리 음악은 우리의 표현 방법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좋으며 5학년 아동 수준에서도 무리가 없다.

4) 58쪽

- (1) 연습곡불기에서 바로 연습곡을 보고 단소로 불 것이 아니라 말로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 단소로 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리듬과 길이를 충분히 알고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악 곡을 배울 경우는 항상 단소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여 악기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연습곡불기에서 율명을 한자로 표기하여도 학습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

5) 59쪽

- (1) 참고자료에서 고사리 꺾자 놀이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동영상 자료가 필요하다. 아동들의 교과서에도 놀이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림을 넣을 필요가 있다.

6) 60쪽

- (1) 취구 그림에서 취구 부분이 거꾸로 그려졌다.

7) 61쪽

- (1) 정간보에서 황, 태, 중 3음의 표기가 잘못 되었다. 潢, 汰, 泔으로 표기해야 단소로 연주 가능 하다.

2. 떡노래

1) 70쪽

- (1) 수업목표에서 '변형된 자진모리장단을 치며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지에 대한 예시나 설명이 없다. 교과서에 변형된 자진모리장단의 대표적인 장단의 예가 제시되어야 한다.

2) 71쪽

- (1) 정리부분 가사 바꾸어 노래 부르기에서 '떡이나 음식을 주제로 하여 재미있는 가사로 바꾸어 흥겹게 노래 부른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예시가 필요하다.
- (2) 평가관점에서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여 노래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평가하기가 곤란하므로 다른 문항으로 바꾸어야 한다.

3) 72쪽

- (1) 장단 치며 듣기에서 '대취타의 장단을 친다'고 하였는데 우측상단에 제시된 장단의 빠르기와 대취타의 장단을 잘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같이 장단 치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한정된 시간에서 처음부터 연습하기가 어려우므로 차시를 늘이든지 기본 장단을 치도록 수정하면 좋겠다.

- (2) 서양 행진곡 듣고 비교하기에서 악기구성, 연주형태에 대한 비교는 없애고 곡의 느낌만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동들 수준에 음악만 듣고 악기구성이나 연주형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이것이 주요학습 활동이 아니므로 필요 없다.
- (3) 오른쪽 1줄의 대취타 장단 표기오류와 마지막 두 정간은 삭제해야한다.
- (4) 왼쪽 17줄에 각 악기들의 음색에 대해 설명 보충에 관련 사이트 참고자료로 삽입, 참고 자료에 각 악기들에 대한 음색 특징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취타는 의식행사에 사용되던 곡이므로 곡의 이해를 위하여 동영상 자료가 안내 되어야 한다.

3. 봄이 가고 여름 오면

1) 97쪽

- (1)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자진모리장단의 지도는 가급적 악곡의 리듬 속에서 장단을 이끌어 내도록 지도한다.'고 하였는데 지도 교사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이끌어 낼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
- (2) 수업자료에 단소가 빠져있다.

2) 98쪽

- (1) 수업 목표에서 '자진모리장단을 치며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 5학년 아동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목표가 너무 높다. '자진모리장단에 맞춰 노래 부를 수 있다' 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 (2) '자진모리장단을 구음과 함께 부른다'는 문장은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구음', '부른다'의 의미가 중복된다.
- (3) 빠르기 변화에 따른 장단 및 노래의 느낌을 파악하는 활동에서 곡의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는 활동이므로 제재 곡을 배우게 되고 자진모리장단을 치는 1차시에서 이를 지도하는 것이 학습목표의 연계성이 있어 보인다. 알맞은 장단을 곡 전체의 느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는 수업이 제재 곡을 익힐 때 선행되고, 오히려 1차시에서 제시되었던 가락의 흐름에 따라 셈여림을 살려 부르는 활동을 후차시로 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셈여림에 따른 프레이즈를 살리는 활동은 곡을 배우는 기초적인 내용이기보다 질적인 차원을 보다 향상시키는 활동이라고 생각되므로 가사를 바꾸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의적인 표현을 유도하는 2차시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나을 것

이다.

3) 102쪽

- (1) '3연음을 들으며 기본음을 친다.'고 하였는데 3연음을 들으며 기본 박을 치는 것은 우리 전통리듬의 9번째 정간에 들어오는 강세를 살릴 수 없으므로 우리 장단에 어울리는 리듬 치기 연습이 제시되어야 한다. 강세의 정확한 표기가 요구된다.
- (2) 자진모리장단의 서양기보법이 틀렸다. 악보에 나타난 점4분 음표와 4분 음표는 점4분 음표와 4분 음표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그려 넣어야함) 덩 쿵 쿵 덕 쿵 을 덩덩덩덕쿵 으로 고친다.

4. 아침해

1) 124쪽

- (1) 수업목표에서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라고 제시되었는데 이는 타 전래동요제재의 '자진모리장단 치며 노래 부르기' (<떡노래>와 <봄이 가고 여름 오면>)와 목표 진술이 다소 다르다. 단위 수업의 활동은 굿거리장단을 익혀 장단을 치면서 노래하는 것이지만, 실제 수업목표 진술은 굿거리장단에 어울리도록 제재 곡을 부르는 것이다. (예 - 대부분의 굿거리장단의 곡은 첫 박에 강세를 주어 부르도록 되어있지만 이 곡은 다음 박으로 넘어가 있어 시작하는 부분이 굿거리장단의 느낌과 다소 다르다. 따라서 굿거리장단의 첫 합 장단을 너무 강하지 않은 보통 크기의 합 장단으로 쳐주어 노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한다 등) 따라서 이러한 목표 진술이 수업활동을 선정하는데 있어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 (2) '기덕'이나 '더러러러'를 연습하는데 1차시 분량 만에 하는 것은 무리이다. 어른조차 1차시 안에 제대로 치기가 어렵다.
- (3) 장구 장단의 표기에서 '덩 덩 덩 덩'의 표기를 '덩 덩 덩 덕 덩'으로 고쳐야 한다.
- (4) 굿거리장단의 '더러러러' 표기를 볼 때 몇 정간에 걸쳐 연주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하다. 실제 연주에서는 2정간에 걸쳐 연주하는데 교사용 지도서는 한 정간으로 연주하도록 표시 되어 있다.
- (5) 장구를 장구채로 스냅을 반동으로 고쳐야 한다.

2) 127쪽

- (1) 4음을 이용한 간단한 가락을 짓는 활동에서 지도서에서는 올라갈 때는 미, 라, 도로 진행하고 내려올 때는 라, 솔, 미로 진행하도록 간단한 창작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제재의 구성 음이 솔, 라, 도, 레, 미이고 도로 마치는 경토리형이기 때문에 경토리 형의 선율 전개를 시사하는 것일 것이다. 좀더 자세한 부연설명이 제시되지 않으면 모든 전통 가락 창작이 이러한 방법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경토리형의 선율전개 외에도 메나리토리형, 남도민요 형태의 간단한 선율진행의 부연설명이 있으면 전통선율 창작에도 체계가 설 것이다.

5. 맑은 물 흘러가니

1) 147쪽

- (1) 시김새를 살려 흥겹게 노래 할 수 있도록 돕는 창작국악동요이나 전통 음악적인 요소를 심도 있게 학습한다기보다 6/8박자의 리듬창작과 언어를 이용한 리듬 놀이 활동에 그 중심이 맞춰져 있다. 제재는 흘러내리는 소리의 시김새를 살려 노래함으로써 국악 동요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 ♪♪♪으로 이루어진 세 부분만으로 시김새를 학습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통기보를 통해 시김새를 학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리듬적 표상이 전통음악의 시김새를 나타낸다는 오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 (2) 단원의 전주, 후주 만들어 연주하기 부분에서 굳이 정간보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오선보를 정간보로 표기하는 방법이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제재곡이 국악 창작 동요이고 오선보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전주 후주 역시 서양 악보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날리리야

1) 163쪽

- (1) 제재개관에서 '경기민요의 시김새를 잘 표현하도록 하고'라고 제재개관을 해 놓고,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경기민요의 창법과 기교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라고 하여 혼동을 주고 있다. 목표로 하는 수준과 특징적인 시김새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164쪽

- (1) 경기민요의 특징으로 '한 글자에 많은 음이 붙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민요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요를 악보화 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자세하게 나타내느냐 생략하고 단순화시켰느냐의 차이지, 경기민요가 한 글자에 많은 음이 붙은 것은 아니다.
- (2) 2차시 굿거리 장단구조에서 '기덕'은 '덕'으로 '더러러'는 3분박임을 감안해 '더더'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굿거리를 가르칠 때, 4박을 충분히 민요에 맞추어 부른 후 장단을 첨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은 어려운 것을 바로 가르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 된 것 같은데, 모든 교수법이 쉬운 것부터 가르치는 방법을 택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악은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을 주어 우리 음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 (3) 첫째 단 두 번째 장구의 굿거리장단의 표기는 '기덕'으로 해야 한다.

3) 167쪽

- (1) 일반적인 학습에서 단소를 한 시간에 연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굳이 1,2차시와 내용 연관이 없다면 1차시로 바꾸어 2,3차시에 지속적으로 전시학습 상기로써 단소 부르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 하다.

4) 245쪽

- (1) 상단 굿거리장단에 기덕의 덕 꼬리표가 빠졌다.

7. 열치잡는 노래

1) 188쪽

- (1) 받는 소리만 익히고, 매기는 소리 익히는 내용이 없다.

2) 189쪽

- (1) 2차시에서 '빠르기가 빠르면 노래가 빠르게, 느리면 노래도 느려진다' 말이 안 된다. 문장 부호 또한 많이 틀리다.
- (2) '빠르게 하다보면 장단을 살리기 어렵다' 는 틀린 말이다. 장단을 빠르게 연주하는 것이

지 살리기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190쪽

- (1) '모르는 말이 많고 사투리 같다'는 표현은 어색하다. '사투리가 많다'로 표현하면 될 듯하다.
- (2) '음악의 빠르기와 일과 관련이 있음을 아는가'라는 말 또한 어색하다. '음악의 빠르기와 일의 관련을 알고 있는가'가 적당할 듯하다.

8. 방패연

1) 204쪽

- (1) 굿거리장단 치기의 '기덕'과 '더러러'의 연습 부분에서 교과서 장구 장단 표기에는 기덕과 더러러가 없다.
- (2) 굿거리장단 치기의 장구 장단의 정간보 표기 부분에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장구 장단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2) 205쪽

- (1) 1차시 평가관점을 '굿거리장단을 치며 노래 부를 수 있는가'로 바꾸어야 한다.
- (2) 2차시 '즉흥연주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없애도록 한다'라는 말은 부자연스럽다.

3) 206쪽

- (1) '굿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일이 있는가?' 필요 없는 말이다.
- (2) 악기의 특징 알기 부분에서 자료제시가 필요하다.
- (3) 악기의 음색에 유의하여 시나위 듣기에서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4) '합주-독주-합주-독주-합주' 형식으로 연주되는 시나위 연주 방식을 아는 것이 제재의 가장 중요한 학습인데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나와 있지 않다. 그것보다는 시나위의 즉흥성이 만들어내는 어울림 등의 시나위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감상하는 단원을 만들어야 하겠다.

Ⅲ. 6학년 국악 단위 분석

1. 동당기 타령

1) 76쪽

- (1) 지도서에는 '제재 곡의 반복되는 리듬 꼴을 친다. ①리듬, ②리듬, ③리듬, ④리듬을 제시하고 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재 곡의 리듬이 16분 음표를 포함한 어려운 리듬이다. 이런 식의 지도는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국악이 어렵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 부분은 삭제되었으면 좋겠다. 단계별로 치려면 교사의 장구 장단에 맞추어 따라 부른 후 기본 박을 치며 노래 부르다가 장단을 더 끼워 넣어서 중중모리 장단을 치며 노래한다.
- (2) 리듬 치기의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
- (3) 오선보에 나타난 육자배기토리의 주요 구성음 악보에 문제가 있다. 오선보에 떠는 음, 꺾는 음, 평으로 내는 음 기호를 표시하고 평으로 내는 음도 일자를 그어서 함께 표시하면 교사들이 남도 소리의 특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77쪽

- (1) 수업목표가 중중모리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를 수 있다.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를 수 있다. 이다. 이것은 현실감이 없는 지도서 내용이다. 중중모리 장단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학생들은 처음으로 중중모리 장단을 배우게 된다. 가사 바꾸기 활동을 넣으려면 1차시 메기고 받을 때 가사를 바꾸어 부르도록 한다. 1차시의 제재 곡의 구성 음을 아는 것이나, 시김새는 노래를 익힐 때 기본 활동으로 한 다음, 심화 활동으로 가사를 바꾸어 부르기 활동을 넣도록 하면 되겠다.

3) 78쪽

- (1) 모듈별로 일과 관련 있는 주제를 정한다고 했는데 제재 곡이 일노래라고 하여 꼭 일과 관련 있는 주제로 가사를 바꿀 필요는 없다. 오히려 창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학급친구들, 우리가족, 학급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청소, 아침자습, 우유먹기등)로 하거나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일을 그다지 하지 않는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일과 관련 있는 주제를 정하여 가사를 바꾸

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이다.

지 도 서	수 정
① 제재 곡의 반복되는 리듬 풀을 친다. ② 한 장단씩 듣고 따라 부른다. ③ 기본 박을 치며 부른다.	① 중중모리 장단의 기본박 익히기 <자진모리장단과의 빠르기 비교를 통해 빠르기 익히기> ② 무릎장단 및 구름으로 익히기 ③ 중중모리 장단 익히기. (구름→무릎장단) ④ 노래하면서 장단 치기 (무릎→장구)

4) 79쪽

- (1) 정리부분 첫째 줄에 '5. 산조 감상하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가 있는데 이것은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다. 산조를 감상하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로 음악적 관점을 제시한 발문이 필요하다. 다양한 여러 산조의 비교활동을 정리부분에 넣도록 한다.

5) 82쪽

- (1) 학습지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음영을 없애고 받는 부분 '당기 등당기 등당기 허'를 함께 실어 창작 학습지를 보고 바로 노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 개구리 소리

1) 91쪽

- (1) 4째줄 또 '개구리 소리'를 단소로 연주하는데 먼저 울명으로 가락을 익혀 노래한 후, 바른 주법을 익혀 단소를 연주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교과서나 지도서는 전국 단위의 표본적인 책이다. 그러므로 지도서나 교과서에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을 알아보기 쉬우며 간결해야 한다. 제시된 본 문장을 보면 간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개구리 소리를 단소로 연주할 때 울명을 먼저 익힌 후 바른 주법으로 연주하도록 한다. 로 바꾸어야 한다.

- (2) '오스티나토'에 대한 일반 교사의 이해는 부족하다. '오스티나토'라는 용어가 지도서에 도입됨으로써 차시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므로 용어 자체는 삭제하고 '간단한 반복 음을 사용하여 개구리 울음소리 만들어 연주하기'로 바꾸도록 한다. 또한 반복되는 가사를 사용하여 반주를 만들어 활동하도록 차시를 구상한다.
- (3) 5.지도상의 유의점 가. 단소는 음량이 그리 크지 않은 악기이므로 좁은 교실에서 모두 함께 연주하는 것보다는 보다 넓은 곳에서 연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라고 했는데 음량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넓은 장소보다 교실에서 연습하기가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음량이 큰 악기는 서로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만 단소는 교실에서 연습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92쪽

- (1) '도입1.-가삿말 속에 숨겨진 개구리 소리를 찾아본다.' 라고 하였는데 '가삿말'을 '노래나 가락 속으로' 고치고 '개구리 소리'를 '동기유발을 위하여'로 고치도록 한다. 그리고 가사 속에 숨겨진 개구리 소리의 답을 제시하면 좋겠다. 가사보다는 가락 속에 개구리 울음소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 (2) 오른쪽 첫째 줄 굵게리장단의 강약을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표기이다. 표기 밑에 '장단의 변화를 줄 때에는 첫 박과 아홉째 박의 중심빼대는 그대로 살리면서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기호로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로 표기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장단의 변화는 첫 박과 아홉 번째 박의 강을 중심으로 장단의 첨가, 생략, 강약의 변화 등을 줄 수 있다.

3) 93쪽

- (1) 수업목표 '오스티나토 반주를 할 수 있다'는 위의 설명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학습방법이라고 본다. 국악 화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조심스럽게 연구되어지는 분야이다. 최근에 국악화성으로 작곡되고 있는 국악신곡이 수제천 등과 같은 전통음악의 완성미를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 낮은 음악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아도 국악 쪽에서 화성을 논하는 것이, 또한 화성을 가르치려고 '오스티나토' 등을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어설픈 일인지, 또한 국악과는 이질적인 학습 방법인지를 증명하는 예라고 하겠다.
- (2) 오른쪽 4째줄 악보가 사장조이므로 계이름을 읽으면 '라, 솔'인데, 계이름을 '레, 미'로 읽고 있다. 잘못된 표기이다.

4) 94쪽

- (1) 왼쪽 9번째 줄, '3. 같은 음~' 은 '3' 이 아니고 순서상으로 '5' 이다.

5) 95쪽

- (1) 5. 단소로 오스티나토 반주하기. 모듬을 4 모듬으로 나누어 1 모듬은 '개구리 소리' 가락을 2~4모듬을 교과서 17쪽에 제시된 세 개의 오스티나토를 각각 맡아 함께 단소로 연주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교과서의 오스티나토 중 2, 3번째는 가능하나 1 번째는 계속해서 오스티나토로 연주하기가 어렵다. '단소'보다는 실제로 노래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정간보의 경우에 한음을 계속 반복하여 연주하기가 어렵고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6) 96쪽

- (1) 2. 단소 연주일지 및 자기 평가지가 있는데 이 평가지를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에 싣도록 한다.

3. 끼리끼리

6/8박자의 다양한 리듬 꼴을 지닌 창작 동요로 바꾸어야 한다. 6학년의 가창 능력상 소화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1) 131쪽

- (1) 1. 제재 개관- 이 제재는 자연 속에서 서로 정답게 어울리는 모습을 노래한 창작 국악 동요로 6/8박자의 다양한 리듬 꼴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둔다. → 아무리 창작 국악 동요지만 너무나 서양음악과 동일한 리듬 지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본 곡은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국악 동요이다. 이러한 곡을 제재 개관 하면서 '리듬 꼴을 지도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내용과 수제천의 특징을 알고 시나위와 비교하도록 한다.' 는 지도내용밖에 쓸 수 없었는지, 이렇게 음악교육 방법론의 부재가 심각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2) 창작 국악 동요에서 6박자의 리듬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동요에서도 한 가지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 그러나 6학년

음악교육과정에서 6박자의 리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창작 국악동요라도 6박자 리듬에 대한 학습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5.지도상의 유의점에서 나. <수제천>과 <시나위> 는 두 음악의 시김새를 비교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고 했다. <수제천>과 <시나위>는 정악과 민속악으로 시김새의 유무에 의해 음악의 느낌이 달라진다. 따라서 두 음악의 흥겨움과 장중함을 사용된 악기들의 현란한 시김새 여부로 살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2) 132쪽

- (1) 도입-초록바다 부르기라고 했는데 초록바다를 부르기보다 앞서 배운 '둥당기 타령'이나 '개구리 소리'를 불러 봄으로써 국악 풍을 느껴보는 것이 좋겠다. 즉 새로운 제재 곡을 배우기전에 관련 있는 배웠던 곡을 불러보는 것은 바람직하나, 초록바다는 본 제재 곡과의 관련성이 미비하여 수정을 요한다.
- (2) 전개 오른쪽부분 -악보를 보고 계이름으로 부른다. 라고 했는데 이 곡에서는 조성을 지도하고 이동도법으로 계이름을 읽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계이름을 읽는 것은 새로운 곡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므로 창작 국악 동요 익히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 계명에 따른 정확한 음정연습이 선행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명을 읽는 것은 계명 창 의 목적에 너무 위배되는 행위이고 시간 낭비에 가깝다. 평소 꾸준히 음정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졌을 때 계명 창도 효과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악은 자신의 성량에 따라 노래의 음을 조절해서 부르는 것이므로 계이름 읽기 활동은 없애도록 한다.
- (3) 전반적으로 너무나 서양 음악적 지도(리듬표, 계이름, 썸머림, 음악기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연 이 노래를 배운 후에 아동들이 우리의 리듬과 가락을 느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3) 133쪽

- (1) 전개부분 정간보에 적은 리듬을 음표로 바꾸어 적고 리듬을 친다. → 정간보에 가사로 리듬을 표현했는데 그것을 다시 음표로 바꾸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간보에 가사를 적으면서 저절로 리듬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4) 134쪽

- (1) 모듬별로 연주하기-전주 후주 넣어 연주하기

→ 전주, 후주에 대한 리듬 예시를 넣어주는 것이 좋다. 지도서에는 가능하면 많은 예들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곡에 어울리는 전주·후주를 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4. 싸름

1) 144쪽

- (1) 1차시 (정리)부분 4. 시김새를 듣고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말이 어색하다. '장단에 맞추어 시김새 살려 부르기' 로 수정함이 좋다.
- (2) '수업 목표'
 1. 제재 곡을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다. 2. 시김새를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다.' 로 수업 목표가 2 개인데 <제재 곡을 듣고 따라 부르기>와 <시김새를 듣고 따라 부르기>는 크게 차이가 없다. 평가 관점에서도 똑같이 '제재 곡을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가? 시김새를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제재 곡을 듣고 따라 부른다는 것은 시김새를 포함하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시김새를 살려 제재 곡을 부를 수 있다' '싸름 노래를 부르며 서도민요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말로 바꾸어야 한다.
- (3) '싸름' 은 아리랑처럼 잘 알려진 곡이 아니다. 노래 부르기를 한 시간에 학습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노래 부르기 부분을 2차시로 늘려 전체 제재곡 지도가 감상1차시를 포함하여 3차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거문도 뱃노래

1) 164쪽

- (1) 1차시 수업목표가 '시김새를 살려 장단 치며 부를 수 있다' 인데 1차시에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를 수 있다.' 로 바꾸어야 한다. 시김새를 살려 장단 치며 부른다는 것은 아동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한 차시의 목표로는 너무 높게 잡았다.
- (2) 수업자료에 '녹음자료: 거문도 뱃노래' 가 빠졌다.
- (3) ※1차시-노래장단 ※2, 3차시 -단소 연주 인데 1차시에 노래와 굿거리장단을 다 지도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장단을 1, 2차시에 걸쳐서 지도하면 더 효과적일 것

이다.

→ 평소 꾸준한 연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6. 풍년가

- (1) 지도서에는 11월에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온갖 곡식이 무르익는 자연환경을 직접 보며 노래할 수 있는 추석 즈음(9월, 10월)에 지도하는 것이 더욱 시기적절하겠다.
- (2) 그림악보 제시 또는 정간보 제시 : 피아노 반주를 해서 풍년가를 불러보면 음이 너무 높아 아이들이 부르기에 무척 힘겹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사가 곡의 음을 낮추어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서에 그림 악보를 제시하거나 정간보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

1) 184쪽

- (1) 우측 8째줄 ‘가락의 흐름을 손으로 그리며 노래 부른다’ 보다 ‘가락의 흐름을 손으로 그려 본후 노래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시김새를 살려 노래 부르는데 더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 (2) 수업자료에 장구도 포함하면 좋겠다.
- (3) ‘제재 곡을 전문가의 노래를 듣는다.’ 어법상 ‘전문가의 노래로 듣는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2) 186쪽

- (1) 좌측 정리 세 번째 줄 -‘자신이 알고 있는 굿거리장단에 민요에 맞추어 장구 반주를 한다’ 문장이 어색하고 조리 있는 표현이 아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민요에 맞추어 굿거리장단으로 반주해본다’ 로 바꾸는 것이 좋다.
- (2) ‘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쪽 뺨다가 음을 꾸미는 시김새가 있다.’ → 시김새를 자칫 꾸밈 음으로 오해하도록 썼다. 그래서 아이들이 민요를 노래할 때 그 음 하나하나를 정확히 소리 내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김새는 주요 음을 꾸며주는 단순한 가락의 나열이 아니라 창자에 따라 그 개성이 묻어날 수 있는 시김새 자체라는 설명이 덧붙여야 한다. 따라서 음을 꾸민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시김새가 있다’ 로 표현하면 된다.

7. 꽤지나 칭칭 나네

1) 195쪽

- (1) <도입>부분에 선수 학습된 같은 형식의 민요 추가: 도입에서 전에 배운 메기고 받는 형식의 민요를 한 번 불러보면 흥미유발에 도움이 되겠다.(예: 앞서 배운 멸치 잡는 노래, 거문도 뱃노래 추가)참고 곡이 꼭 필요함
- (2) 메기는 소리를 지도하는데 (리듬 익히기-리듬+가락+가사)순서로 지도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민요를 가르칠 때는 이렇게 리듬 따로 가락 따로 가르치지 않는다. 흥겹게 느낌을 살려서 교사가 선창(리듬+가락+가사) 하면 학습자들이 따라서 부르는 전통적 음악 지도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교수법이 아닐까?
- (3) 전통적 음악지도법이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서양음악의 분석적인 지도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다 심도 깊은 전통음악 지도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 끝맺는 글

이상의 국악지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잘못된 내용들과 미비한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과 이에 따른 결론을 항목별로 논의하며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언에 덧붙이고자 한다.

1. 결론

- 첫째, 국악 감상학습의 다양한 수업형태가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둘째, 모든 제재가 한결같이 같은 방법으로 학습이 전개되고 있다.
- 셋째, 장구·단소 지도내용이 각 학년 지도서에 지도방법과 연간 지도계획이 앞부분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지 않다.
- 넷째, 국악내용에서 체계를 세우지 못했다.
- 다섯째, 오자·탈자가 아주 많아 무성위한 집필을 보이고 있다.
- 여섯째,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국악지식에 대한 참고 자료가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일곱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아 교사용 지도서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여덟째, 지도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김새, 구음, 농현, 퇴성, 전성, 추성, 국악의 맛 등의 서양음악에 없는 국악의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아홉째, ‘교사 기록란’ 등의 빈 공간이 많다.

2. 제언

첫째, 현실성·체계성·통일성을 기하여 집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당국은 교사용 지도서의 집필업무와 연구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방침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집필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마다의 집필진과 연구진이 누구였는지 단위마다 명시를 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현장 교사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의문이 있는 것은 그 단원의 집필진에게 문의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에 연구진과 집필진의 이름과 매일 주소를 같이 게재하는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둘째, 다양한 학습 방법을 적용한 다양한 세부내용을 엮어야 한다.

셋째, 장구, 단소 지도내용이 지도서에 각 학년 단소 지도방법과 연간지도 계획이 앞부분에 자세히 안내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기록란의 빈 공간에 교사용 지도서 편찬방향에 제시한 대로 교수, 학습자료 등을 첨가하는 편이 좋다.

다섯째, 집필 후 성의 있는 교정을 하여, 기본 문법적인 오자, 탈자 등 국어문법에 맞게 편찬토록 교정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01). 교사용지도서 음악 5. 6. 서울, 국정교과서 2001.
- _____ (2002). 음악 5. 6. 서울, 국정교과서, 2002.
- _____ (1992).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II). 서울, 대한 교과서, 1992.
- _____ (2001). 제 7차 교육과정 서울, 대한 교과서, 2001.
- 석문주(1996). 음악적 성장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 지도. 서울, 풍남, 1996.
- 성경희(1992). 제 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 연구 초·중·고등음악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인수(1996). 국민학교 교사용 음악지도서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대구교육대학 논문집 제 31호집.
- 음악대사전 편찬위원회(1984). 음악대사전. 서울, 신진출판사.
- 윤구병(1987). 교과서와 이데올로기. 서울 : 도서출판 천지.

ABSTRACT

An examination of the Korean classical music contents in the teacher's guides for primary school music textbooks: With reference to the 5th and 6th year textbooks

Lee, In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teacher's guides for the 5th and 6th year music textbook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7th Curriculum. The examination focuses on Korean classical music contents in the textbooks. Through this examination, quite a few serious problems have been observed.

Teacher's manuals are supposed to be written such that they guide teachers to the motives of the course and to more effective methods of teaching. With a close look at Korean classical music contents, however, the current teacher's manuals do not seem to have been written with clear motivations. They have a plenty of statements that are not very comprehensible to teachers. In addition, it is not difficult to notice that they lack explanations and introduction of relevant materials without which many teachers would be impossible to get the point. The teacher's manuals, eventually, are responsible for the situation in which music teachers get confused and even get lost in preparation for their classes.

Finally, this paper offers some ideas for improvement such that teacher's guides provide teachers with quality methods of teaching Korean classical music.

주제어 : 국악교육